

아크릴 섬유산업

- 판매 및 수출에의 기여(1) -

1. 창업 초기

1967년 말 우리 나라의 아크릴섬유 공업 수준은 세계 선진제국과 비교해 볼 때 초창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제 경영단위로의 시설확장이 시급하였고 소규모 생산에서 오는 생산원가고와 그 생산량이 국내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양산체제 확립에 의한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공급을 통해 수출 지원 산업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게 되었다.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생산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시설확장 또는 신규 공장건설을 활발히 추진하여 온 아크릴섬유업체는 1968년도에 내수를 충족시키고도 여력이 있을 만큼 성장하여 그 여력을 수출수요에 돌려(수입대체) 외화를 절약하고 수출 가득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화학섬유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 대중화되면서 그 수요에 대비한 화학섬유공업은 증산에 박차를 가하는 등 수급계획에 따른 수급균형 유지에 온갖 힘을 기울여왔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화 대체 추진을 통한 외화획득 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수출에 의한 실질적인 외화획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수출 초기의 모드 약조건을 무릅쓰고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였다.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아크릴섬유업체 중 한일이 1968년 11월 30일 제 5회 수출의 날에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1969년도 중 내수용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여력이 있었던 아크릴섬유는 본격적으로 수출(수출용 원자재 공급)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아크릴섬유의 수출실적은 1,929톤으로 화학섬유 수출량 2,129톤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의 수출액은 1970년에 1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여 연평균 신장률 43%라는 고도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렇게 괄목할만한 수출에서 계속 30% 이상의

막중한 쉐어를 지켜온 석유류는 어떠한 각도에서도 과소평가될 수 없는 산업상의 비중을 과시하였다.

1970년 석유류의 수출고는 3억 3,425만 달러로써 수출총액의 33%를 점하였다. 그 중에서 화학석유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1969년 2,129톤이던 것이 1970년에는 총생산고의 21.5%에 해당하는 11,426톤이 원자재의 형태로 공급되었다. 그 중 아크릴석유가 7,372톤으로 그 대종을 이루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주와 서구지역의 스웨터 수요 신장에 힘입어, 아크릴 스테이플로부터 제품생산까지의 일관체제를 갖춘 메이커들이 이 방면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풀이된다.

2. 육성기

1971년도 국제적으로는 주요 선진국가의 경기후퇴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미국의 석유류 수입규제 등의 강력한 대두로 국제교역이 침체현상을 나타냈고, 국내적으로는 안정속의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시책하에서 강력한 금융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자금의 신규방출 억제, 연체 대출분의 강력한 회수 등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13억 5000만 달러의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수출 무드의 조성, 외화가득률의 제고, 수출산업의 기반 강화 등의 시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석유류의 수출고가 5억 2,000만 달러로 수출총액의 38%를 점하였던 한 해 이었다.

1970년에는 11,426톤이었던 화학석유의 수출량이 1971년에 34,868톤 보다 약 2.4%증가한 것으로, 당시의 원자재 국산화 정책은 수입억제에 큰 제동력이 되었다. 즉 1971년 10월 18일 상공부는 수출 석유제품의 외화획득 향상으로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국내 화학석유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아크릴석유 및 방적사를 비롯한 폴리에스터 석유, 나일론 F사를 수입할 때는 상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그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수입 담보금을 적립케 하는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상공부고시 제8,080호)을 채택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업체는 원자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원자재의 완전 국산화에 일보 전진적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6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석유수출은 연평균 40%대의 증가율을 지속하

여 왔으며 이 같은 석유수출은 주로 수입 화석사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수출이었으나,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학석유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아크릴계 화학석유의 수출용 공급은 짧은 기간 동안에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 석유수출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일합성은 1973년 수출의 날에 국내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1973년의 수출용 화학석유 공급량은 1972년보다 34% 증가한 총 77,404톤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에서 전년 대비 45%의 증가를 보인 아크릴석유가 21,879톤으로 전체 화학석유 중 29%를 차지하였다.

1974년의 화학석유 출하량 155,534톤 중에서 아크릴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인 44,190톤에 달하였고 동 품목의 수출 대 내수의 비율은 62:38이었다. 한편 1974년도 아크릴 스테이플의 수입상황을 보면 13,465톤으로 전년의 19,539톤보다 32% 증가를 나타냈으며, 수출용 원자재로 공급한 아크릴석유는 21,879톤에서 27% 증가한 27,775톤이었다.

1975년도 아크릴석유 국산 출하분을 살펴보면 1974년의 44,190톤에서 103%가 증가한 89,757톤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대 내수 비는 68:32로써 수출비중이 해마다 더욱 높아져 감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석유 파동 이후 선진제국의 조업단축, 일시해고(lay off)에 따른 재고소진, 그리고 2차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증가와 업계의 시장 다변화, 신제품 개발노력 및 적극적인 판매활동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일합성의 아크릴/면 혼방사 개발 등은 치열한 국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과 시장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성장기

1976년도에는 연초부터 세계 각국이 석유시장의 불황과 자국내 석유산업의 보호를 내세워 경쟁이나 하듯이 석유류 수입을 규제하는 상황 속에서 직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화학석유업계는 42,003톤에 달하는 직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그 중 아크릴 스테이플 및 아크릴 방

적사는 20,605톤으로 화학섬유 중 단연 수위를 기록하였으며, 아크릴 스테이플의 직수출 및 로컬 공급 물량은 무려 80,656톤으로 전체 화학섬유 중 약 1/3을 차지하였다.

1977년도 아크릴 섬유의 수출수요는 아크릴방적사에 대한 이란의 수입 규제 등으로 상당히 줄어들어 직수출 실적은 14,119톤에 불과하였고, 아크릴 스테이플의 수입 실적은 전년대비 16% 증가된 3,108톤으로 총수요의 2.9%를 차지하였다.

1978년도 아크릴 스테이플의 출하량은 128,036톤이며 수출량은 83,531톤, 내수량은 44,505톤으로 내수 비율은 전년 대비 1.5%증가하였으며, 아크릴방적사의 직수출은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16,966톤이었다.

1979년에는 직수출에 힘을 쏟게 되어 아크릴방적사는 전년대비 27%의 증가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섬유류 수출이 전반적으로 둔화되어 감에 따라 메이커들의 로컬공급도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즉 상반기에는 비교적 안정되었던 국내 화학섬유류의 로컬수요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아크릴섬유를 비롯한 거의 전품목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는 전년도에 수출용 원자재의 물량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해 당국이 높게 책정해 준 수출용 원자재의 자동수입 링크율이 1979년에도 계속 적용됨에 따라 수요업체가 계속적으로 수입품을 사용하므로 해서 로컬 공급을 감소시키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로컬 공급실적이 연말로 갈수록 증가하던 예년과 달리 거의 전품목의 공급량이 감소하거나 연초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즉 아크릴 스테이플의 경우 1978년에는 12월 출하량이 1월보다 35%나 증가했었던 데에 비해 1979년에는 7%의 증가에 머물렀다. 1979년 중 내수 출하량은 전년 대비 26%감소한 33,086톤이었다.

1980년의 아크릴섬유 수요는 전년비 5% 증가란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으로써 1979년에 이어 1980년에도 아크릴 섬유의 부진상을 여실히 나타내었다. 직수출(방적사)은 전년비 약 82%나 증가한 39,194톤을 기록하였다. 직수출이 이처럼 대폭 증가한 것은 정부가 환율인상 등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실시하였고 1979년 이래의 내수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 신시장 개척에 노력함으로써 동구 등 공산권 지역으로 아크릴방적사 수출이 본격화 되어 물량의 급신장을 이룩하였

으며 세계적인 이상 한파로 아크릴섬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던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1980년도의 로컬공급량은 72,216톤으로 전년 수준에 머물렀으며, 내수 출하량은 23,215톤으로서 전년대비 30%나 줄어들었다. 이처럼 내수가 격감된 것은 극심한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환율인상, 금리인상, 유가인상 등 제반여건이 아주 나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비단 아크릴섬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아크릴섬유는 내수물량의 격감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원가 이하의 출혈판매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겪었다.

1981년도의 출하량은 149,705톤으로 전년대비 11.2%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 중 내수가 27,303톤, 직수출이 46,044톤, 로컬량이 76,358톤으로 전년 수준을 약간씩 상회하였다. 직수출의 대부분은 방적사이였으며, 재고량은 20,000톤을 넘어 전년대비 20%이상의 증가를 나타냈었는데 이것은 수요증가보다 생산이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내수량은 전년대비 17.6%의 증가를 보였는데 당초 내수시장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4/4분기 성수기에 크게 진전을 보였다.

직수출은 전년대비 17.5%의 증가를 보였는데,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중 14,385톤의 대량 소진을 고비로 격감 추세로 반전하여 3/4분기는 9,409톤으로 1/4분기 대비 35%나 감소를 나타내었다. 직수출이 불투명하게 된 이유로는, 해외선진국의 경제사정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직수출의 큰 출구로 여겨왔던 동남아시아를 통한 제3국으로 수출이 단기간에 끝나 주요시장에 대한 아크릴제품 수출 공세가 크게 강화되었으나 또한 각국의 보호무역강화 추세로 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로컬량은 전년 대비 5.7%의 증가를 보였으며 1/4분기 이후 비교적 지속적인 활기를 보였는데, 이것은 1980년 말에서 1981년 초 수출이 활발하였던 시기에 수주한 아크릴 제품류의 대량 수요에 크게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총수요 중 로컬량이 62.4%를 차지한다.